

■ 프레지던트컵은 어떤 대회?

상금 無...운영경비 200억

프레지던트컵에는 단 10원의 상금도 걸려 있지 않다. 그러나 대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어마어마하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운영 경비로 얼마가 사용되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골프계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대략 200억 원 정도가 경비로 들어간다. 200억원은 올 해 29개 대회를 치른 KPGA 투어의 총상금인 18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운영 경비의 절대 다수는 선수들이 이동하고 먹고 자는 데 사용된다. 전용기로 입국한 애덤 스코트와 찰 슈워젤, 브랜드 그레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주최측에서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했다. 뿐만 아니라 선수는 최고급 시설의 호텔에서 숙박하고 모든 선수들에게는 이동할 수 있는 개인차량을 지급한다. 대회 개최를 위해 코스를 개조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은 2년 동안 코스 리뉴얼 공사를 했다. 6개의 벙커를 증설하고 그린 등을 보수했다. 조직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목공사 면적은 2만4000㎡, 부대시설 및 텐트 건축물 총 면적 1만3000㎡ 이상, 코스 내 대형 LED 스크린 15개 설치, 대회장 내 갤러리용 이동식 화장실 50개 이상, 17개(5500석 규모)의 갤러리 스탠드를 새로 설치했다. 아울러 대회 운영에만 약 4000명의 스태프가 투입되고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갤러리들의 반입 물건의 크기에 제한된다. 대회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각종 음식물 ▲로고가 표시된 우산 ▲비디오 카메라 ▲사진기(목요일부터) 및 셀카봉 ▲플라스틱 및 금속, 유리컵 그리고 유아용과 의료용을 제외한 각종 및 상자 ▲컴퓨터, 노트북 ▲폭죽이나 레이저 프린터 ▲이동식 의자에 부착된 방석 ▲자전거, 방석 ▲애완동물(서비스용 동물 제외) ▲갈, 소형화기 및 무기 ▲백팩, 카메라 가방, 불투명 비닐 가방 ▲15cm(가로)×15cm(세로) 이상의 이동식 의자 및 운반용 가방 ▲30cm×15cm×30cm 이상의 플라스틱 ▲메시(그물망)백, 쌍안경 케이스 ▲대형 토트백(상부가 벌어져 있는 핸드백이나 쇼핑백) ▲일정하게 프린트된 플라스틱 백 ▲접이식 의자가 방(단 접이식 의자는 반입 허용)을 갖고 코스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유모차는 코스에 입장이 가능하다. 주영로 기자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프레지던트컵

필 미켈슨 10회 출전 '최다'

프레지던트컵은 4라운드 동안 경기해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하는(스트로크 플레이) 일반 프로골프대회와 다르게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한 생소하다.

▲포볼(Four-Ball) 방식=양 팀 각 2인1조로 펼치는 팀 매치로 각각의 볼로 플레이하고 그 홀을 마무리했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선택하는 경기 방식. 베스트 볼(Best Ball)과 베타 샷(Better Shot)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섬(Foursomes) 방식=양 팀 각 2인1조로 펼치는 팀 매치로 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경기 방식. 알터니트 샷(Alternate Shot) 방식이라고도 한다.

▲올 스퀘어(All Square)=무승부 상황을 말하며, A S로 표기한다.

▲컨시드(Concede)=매치플레이에서 상대방 선수가 짧은 거리의 퍼트를 남겼을 경우 1퍼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행위(컨시드는 철저히 거부할 수 없음). 만약 컨시드로 착각하고 볼을 집어 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타 없이 리플레이스하고 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1벌타를 받는다.

▲도미(Dormie)=매치플레이에서 현재까지 이긴 홀의 수가 남은 홀의 수와 같을 때를 말한다. 다음 홀에서 비기거나 해도 승부가 끝난다.

▲해브드 홀(Halved Hole)=양 팀이 같은 스코어로 홀을 마무리했을 때를 말하며, 승부는 다음 홀로 넘어간다.

- ▲우승에 필요한 승점=15.5점(총점 30점)
- ▲최다 출전 선수=필 미켈슨(10회)
- ▲최다 승점 기록 선수=필 미켈슨(25.5점)
- ▲최다 싱글 매치 승리 선수=타이거 우즈(6승)
- ▲최다 포섬 승점 획득 선수=타이거 우즈(11.5점, 11승1무4패) 필 미켈슨(11.5점, 10승3무6패)
- ▲최다 포볼 승점 획득 선수=필 미켈슨(10.5점, 8승5무5패)

▲단일 대회 최다 승점 획득 선수(5점)=마크 오미라(1996년) 마루야마 시게키(1998년) 타이거 우즈(2009년) 짐 퓨릭(2011년)

▲최연소 출전 선수=이시자와 료(2009년-18세21일)

▲최고령 출전 선수=제이 하스(2003년-49세353일)



조던 스피스



제이슨 데이



배상문

17승 678억 vs 13승 425억 '세기의 대결'

(미국팀 출신 PGA 우승횟수와 상금 총액)

(인터내셔널팀 출신 PGA+유러피언투어 우승횟수와 상금 총액)

미국팀 vs 인터내셔널팀			
미국팀 선수	시즌 성적	인터내셔널팀 선수	시즌 성적
조던 스피스	5승	제이슨 데이	5승
버바 왓슨	2승	루이 우스투이젠	-
지미 워커	2승	애덤 스코트	-
잭 존슨	1승	마쓰야마 히데키	-
리키 파울러	2승	브랜드 그레이스	2승
더스틴 존슨	1승	마크 레시먼	-
패트릭 리드	1승	아니르반 라히리	2승
맷 쿠차	-	찰 슈워젤	-
크리스 커크	1승	통차이 자이디	1승
JB 홀스	1승	대니 리	1승
필 미켈슨	-	스티븐 보디치	1승

8일 개막 프레지던트컵 관련 포인트

역대 전적 인터내셔널팀 1승1무8패 열세 미국팀 스피스 등 세계랭킹 20위내 9명 배상문, 대회 코르서 우승경험 활약 기대

세계 남자골프의 '발'들이 인천에 모였다.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부터 제이슨 데이(호주), 리키 파울러(미국), 애덤 스코트(호주) 등 쟁쟁한 스타들이 모두 한국 땅을 밟았다.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 간의 남자프로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은 6일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8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의 화려한 샷 대결이 펼쳐진다. 11번째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은 어떤 대회이며, 프레지던트컵을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봤다.

●24명 스타 수입만 1000억원

프레지던트컵은 일반 프로골프대회와 달리 상금이 없다. 우승팀에는 오로지 12kg짜리 트로피가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대회에 출전하는 24명 스타들의 수입은 어마어마하다. 수입 1위는 올 시즌 PGA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조던 스피스다. PGA투어 시즌 상금 1203만465달러와 페덱스컵 플레이어로 우승 상금 1000만 달러까지 총 2203만465달러(약 258억원)를 벌었다. 이어 버바 왓슨이 687만 달러, 리키 파울러 577만 달러, 더스틴 존슨 550만 달러 등 미국팀 12명의 선수가 상금으로만 벌어들인 수입 총액은 약 5720만 달러(약 678억원)에 이른다.

이에 맞서는 인터내셔널팀 수입 1위는 제이슨 데이다. 스피스와 함께 PGA투어에서 5승을 기록한 데이는 940만3330달러(약



110억원)을 벌었고,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가 396만 달러(약 4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PGA투어는 물론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 중인 12명의 수입 총액은 약 3627만 달러(약 425억원)에 달한다.

●인터내셔널팀 1승 열세 뒤집을까?

11회째를 맞는 프레지던트컵에서 인터내셔널팀은 절대 열세를 보였다. 역대 전적 1승1무8패에 그치고 있다. 1998년 3회 대회에서 유일하게 우승했다. 2003년 무승부를 기록했고, 2005년 이후엔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인터내셔널팀은 전력면에서 미국팀에 열세라는 평가다. 미국팀으로 선발된 12명 중 9명이 세계랭킹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특급스타로 구성됐다. 1위 스피스를 비롯해 버바 왓슨(4위), 리키 파울러(5위), 더스틴 존슨(8위), 잭 존슨(10위), 맷 쿠차(15위), 지미 워커(16위), JB 홀스(18위), 패트릭 리드(19위)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물들이다. 이밖에 필 미켈슨(24위), 크리스 커크(27위), 필 하스(28위)까지 스타군단으로 구성됐다. 또 12명의 선수가 올해 PGA투어에서 거둔 우승만 17번이다.

미국에 비하면 인터내셔널팀의 무게감은 떨어진다. 제이슨 데이(5승)와 대니 리, 배상

문, 스티븐 보디치(이상 1승)가 PGA투어에서 8승, 아니르반 라히리와 통차이 자이디, 브랜드 그레이스가 유러피언투어 등에서 5승을 합작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은 이번 시즌 우승이 없다. 경험 면에서도 미국에 뒤진다. 미국팀은 2회 이상 참가한 선수가 5명이다. 반면 인터내셔널팀은 애덤 스코트(6회)와 제이슨 데이, 찰 슈워젤(이상 2회) 3명뿐이다. 라히리와 배상문, 대니리, 스티븐 보디치, 통차이 자이디는 모두 처음 프레지던트컵 무대에 선다.

전력 면에서 인터내셔널팀이 열세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그러나 인터내셔널팀은 극적인 반전을 노린다. 4일 동안 펼쳐지는 5경기 중 4경기는 포볼과 포섬 등 개인플레이가 아닌 팀플레이로 진행되고, 기존 34경기에서 30경기로 줄어든 것이 인터내셔널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개막을 사흘 앞두고 귀국한 닉 프라이스 인터내셔널팀 단장은 "미국의 전력에 강하지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잘 하고 조 편성에도 신경을 쓰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배상문은 대회에 열리는 코스에서 두 차례나 우승 경험이 있고, 대니 리 역시 최근 상생세를 타고 있어 좋은 활약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사격국가대표 음빛나가 5일 대구사격장에서 열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여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 예상 밖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은 19개국 중 8위에 머물렀다. 대구 | 뉴스

국가대표 스타들, 세계군인체육대회 빛낸다

축구 이정형·권하늘, 사격 음빛나 등 각국 전·현직 스타플레이어 관심집중

전 세계 120여개국, 7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2~11일)는 전·현직 국가대표들의 작은 경연장이다. 특히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터라 스포츠계의 관심도 뜨겁다.

한국 선수단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역시 축구. 1월 2015호주아시안컵을 앞두고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깜짝 스타로 성장한 유근병 장 이정형(24)과 8월 2015동아시아안에서 국내 여자선수 최초로 센추리클럽(A매치 100회 이상 출전)에 가입한 중사 권하늘(27)이 대표적인 태극전사·태극낭자다.

물론 타 종목에도 국가대표가 많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육근 중사 음빛나(24)가 대표적이다. 내년 4월(예정) 올림픽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면 꿈의 무대에 설 수 있다.

이밖에 인천아시안게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85kg급 은메달리스트 이세열(25)과 남자 자유형 86kg급 동메달리스트 김관욱(25), 6월 남자유도 81kg급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 이승수(25),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펜싱 동메달리스트 강민규(23), 2012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남자사이클 최승우(26), 박건우(24) 등도 밝은 내일을 그려가는 예비 스타들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대표들이 종종 눈에 띈다. 한국(270명) 다음으로 많은 224명의 선수들을 파견한 중국에는 남자수영의 차세대 간판 남제타오(22·해군 소위)가 있고, 이탈리아

아에는 2008베이징올림픽 남자양궁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 런던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딴 마우로 네스폴리(28·공군 상병)가 버티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전·현직 스타들이 자웅을 겨루면서 대회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환하게 웃었다.

문경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여자축구팀 부산상무, 미국 꺾고 4강행

국군체육부대 소속 여자축구팀 부산상무가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별예선 A조 2차전에서 전한솔·송다은의 연속골을 앞세워 미국을 2-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1승1패, 승점 3으로 A조 2위를 차지한 상무는 7일 B조 1위와 결승행을 다툰다.

문경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